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박수미*

이 글은 한국사회 가족내 성 형평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정책적·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 당시 한 자녀를 둔 20-34세 기혼 여성의 둘째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516명 가운데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는 여성들은 54.7%, 282명이었다. 분석결과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자녀 태울 조절'과 '원하는 자녀 구성' 등 가족주기상의 가족계획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90% 유의도 수준), 첫째 자녀의 성이 여아일수록 둘째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가족내 부부의 '성 형평성 요인'은 기혼 취업 여성에게서만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둘째 출산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나 가사분담률과 같은 부부간 성 형평성 정도는 그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전업주부의 경우 둘째 출산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자녀양육기간을 단축하고 이후 재취업을 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가족내 성 형평성 여부가 둘째 출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혼취업여성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업주부여성 모두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인 생애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일·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가족내 성 형평성 증대와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핵심단어: 저출산, 성 형평성, 둘째 출산, 기혼취업여성, 전업주부, 일·가족생활 양립

I.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경향이 발견되는 가운데에서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는 출산력 수준의 하락폭이 특히 큰 국가군에 분류되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는 저출산 대책 문제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smpark@kwidimail.re.kr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일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2000년 이래 1.2명 수준을 밑도는 초저출산 사회(lowest low fertility society)에서 탈출하기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결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진단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크게 두 국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만을 언급하겠다.

첫째, 결혼 이행 이전의 단계로서 결혼을 감소의 원인 진단과 해결책 모색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결혼관계내에서의 출산만을 인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율의 감소 혹은 결혼연령의 상승은 곧바로 출산율 하락과 연결된다. 결혼율의 감소는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평등 의식과 기존의 가족규범 사이에 격차가 커지면서 젊은이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결혼을 통해 구성되는 가족은 더 이상 필수적인 문제도, 매력적인 유인 요소도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 결혼율 감소 추세는 장기화된 경제 불황, 이 가운데에서 특히 청년실업의 증대로 인한 결혼 연기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요즘 젊은 세대에선 맞벌이 가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청년 실업문제는 여성에게도 결혼 연기를 초래하는 효과를 갖는다. 여성에게 '일'이 지니는 의미는 배우자의 역할 기대 변화뿐만 아니라, 성평등 의식의 확산 및 2차 인구학적 변천으로 일컬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남성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결혼 이후 가족관계내에서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소자녀 가치관이 정착된 것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결책 모색이 요구된다.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 양육을 쉽게 고비용과 연관시키게 하고, 그에 따른 가계수입 증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매우 미흡하여 개별 가족,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돌봄노동(care work)의 대부분을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제도가 미발달된 곳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이재경외, 2005).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보육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기성 가족생활이 사회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과부하되지 않고 여성의 경력단절 위험성이 사라지며 성평등한 형태로 정착될 때 이미 결혼관계 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결혼

은 매력적인 생애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현상이 하나의 사회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오늘날의 저출산 현상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 및 양성화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폴브(Folbre, 1997)의 진단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재생산 노동 혹은 돌봄의 역할은 돌보는 자로 하여금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할 뿐 아니라 경쟁중심의 사회에서 불평등한 조건을 부여한다. 남성은 여성이, 부모가 아닌 자는 부모가, 고용주는 노동자가, 국가는 개인이 돌봄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에 따라 기대되는 결과는 바로 돌봄의 역할과 대상을 축소시키는 것, 저출산 현상이다(이재경외, 2005).

이 논문은 이 가운데에서 특히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못지않게 가족내에서의 성평등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돌봄노동은 사회가 개인과 함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성이 여성과 함께, 즉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서 가족내의 불평등한 역할분담을 들고자 한다. 가족내에서 가사분담을 둘러싼 성 형평성이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둘째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한국사회 급격한 저출산 현상의 최대 요인은 혼인연령 상승이나 독신자의 증가 등에 따른 결혼율 감소를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기혼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이래 1.8명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출산력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혼인연령 상승이나 독신자 증가의 주요 원인인 청년층 실업대책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출산행위에 있어서의 기혼여성의 안정성도 점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기혼여성 내부의 이질적인 집단 사이에 출산에 대한 태도와 행위에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혼자이지만 장차 기혼자가 될 세대들이 실제로 기혼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출산태도 및 행위는 현재 기혼여성의 출산태도 및 행위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적·잠재적 기혼여성의 출산행위에 가족내 성 형평성 정도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II. 선행연구검토: 성 형평성(gender equity)과 출산력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선진국 가운데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지닌 국가가 5개 국가에서 63개 국가로 급상승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족에서의 성 형평성 정도의 효과에 주목하게 되었다.

맥도널드(McDonald, 2000)는 출산을 감소 이론에서 젠더 형평성의 역할을 정교화하는 일련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은 개인 대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의 높은 성평등성과 가족 대상 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의 불평등성 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의 결과임을 지적한다. 공적 영역에서의 동등기회와 제도적 평등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켰으나, 여성이 여전히 가족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갖게 될 때, 여성은 불평등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적인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 내 성별불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파트너십 형성을 제한하며, 따라서 성평등은 가족쇠퇴의 원인이 아니라 가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Künzler, 2002).

다시 말해서, 맥도널드(2000)에 의하면 성평등 수준의 차이는 개인 대상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와 가족 대상 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 간의 차이를 말한다. 개인 대상 제도로는 경제활동참여율, 임금, 고등교육에서의 성별 차이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족 대상 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구내 성별분업 등을 들 수 있다. 즉, 성평등 수준이 중간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은 개인 대상 제도는 평등한 반면, 가족 대상 제도는 불평등한 국가군이다. 반면, 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들은 양쪽 모두의 성평등 수준이 높은 것이고,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은 양쪽 모두의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경우이다. 그리고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는 곳은 바로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국가들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호크쉴드(Hochschild, 1989)와 같은 가족사회학자는 미국의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를 '지연된 혁명(stalled revolution)'이라고 불렀다. 즉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여 일하는 비율은 급속히 증가했는데 남성들이 집안에서 가사일을 분담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추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맥도널드가 제안한 개별제도에서의 높은 성 형평성과 가족제도에서의 낮은 성 형평성 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둘 다 여성의 '이중 부담'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설명하고 있다.

린드퍼스 등(Rindfuss & Brewster, 1996)은 노동시장 참여와 아동 양육에서의 여성 역할이 갈등 관계에 놓일수록, 즉 이 두 역할의 불일치가 강할수록 출산율 기대 수준이 낮아진다고 했다. 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Brewster & Rindfuss, 2000; Morgan, 2003; Lehrer & Nerlove, 1986)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가구 밖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사회적 지원이라 함은 모성보호정책, 정부의 지원금,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보육시설 활용 가능성 등을 가리킨다. 그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회적 지원 변수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출산력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출산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출산율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부정(父性)적·사회적 개입의 결여 때문"이라는 폴브(Folbre, 1997)의 말을 떠올릴 수 있다.

쉐내(Chesnais, 1996)는 개발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분석하였으며, 이것을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 paradox)라고 명명하였다.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젠더 관계를 함의하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기회 뿐 아니라 성 평등한 역할, 규범, 가치 등을 포함하고 젠더가 개인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으며,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 또한 출산율이 높지만,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경우는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U자형 관계를 보인다고 한다.

토어와 쇼트(Torr & Short, 2004)는 쉐내(1996)의 분석을 미국 가구의 둘째아 출산과 가구내 성평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연결시켜서, 부부간 가사분담 정도가 높은 가구가 가사분담율이 중간인 가구보다 둘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여성이 가사분담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가구도 가사분담율이 중간인 가구보다 둘째아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가구내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가 U자형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 국가의 제도적 성평등 수준과 출산력 수준을 비교한 맥도널드(2000)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제도적 수준의 성평등이 가족내 성평등 수준으로 전화되지 못한 경우에 출산과 보육에 대한 여성의 선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토어와 쇼트(2004)의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한 명의 자녀가 있는 미국의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내 가사분담의 정도가 둘째 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1987-1988년 1차 조사에 이어 5년 후인 1992-1994년에 2차 조사를 함으로써, 실제로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구의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토어와 쇼트는 맞벌이 가구를 부부간 가사분담 비율에 따라 모던커플, 중간 커플, 전통적 커플로 분류하였는데, 둘째 아이의 출산은 모던 커플이 81%로 가장 높았다.

킨즐러(Künzler, 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성별분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사, 육아 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연구방법과 자료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외국의 경험적 연구에 기반하여 한국사회 가족내 성 형평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이라고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결혼한 커플들은 거의 대부분 첫 출산을 경험하기 때문에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둘째 출산 이행 과정을 분석하는 게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 초저출산 현상의 관건이 되는 지점이 바로 한국의 출산력 수준이 인구대체수준인 2명 이하에서 급락하여 거의 1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으므로 둘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부부간 성 형평성 정도와 둘째 출산 계획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사회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 자료는 횡단면적 자료와 종단면적 자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서 결혼·출산과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장점을 지니고 있다(이삼식 외, 2005). 이 조사 자료에는 20-44세 기혼 여성 3,802명과 미혼 남녀 2,670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선 기혼 여성 3,802명의 자료가 분석대상이다.

이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내 성 형평성 정도’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 주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첫째 출산 이후 아직 둘째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향후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둘째 자녀 출산 계획'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선행연구 검토 결과 채택된 독립변수를 연구 모형에 포함시켜 로짓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의 특성

분석 대상은 조사 당시 한 자녀만을 두고 있는 867명의 기혼 여성 가운데, 둘째 출산 계획 응답이 비교적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20세-34세의 기혼 여성 516명이다¹⁾. 조사 시점 당시 한 자녀를 둔 20세-34세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516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여성의 57.8%인 298명이 30세-34세에 집중되어 있다. 표본의 절반가량이 고졸 학력자이며 30% 정도가 4년제 대졸 학력자이다. 또한 표본의 84%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35.7%인 184명이다. 이들 가운데 53%는 자신 또는 가족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61.6%, 3세 이상 학령전기의 자녀를 둔 가정은 26.2%이다. 첫째 자녀의 53.7%가 남아이다. 또한 이들 가운데 69.8%인 360명은 현재 한 자녀만을 두고 있지만,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라고 응답했다.

1) 2007년 한국여성의 모 연령별 출산아수 분포를 보면 30-34세 연령대 여성이 전체 출산아수의 41.96%를 차지하고, 35-39세 연령 여성이 전체 출산아수의 10.55%를 차지하여 35-39세 연령대 여성이 둘째아 출산에 어느 정도 의미있는 집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에서 35-39세 여성을 제외한 이유는 둘째출산 의향 조사에서 둘째출산 계획 결정에 본인의 건강 여부 등 둘째 출산이 집중되는 30-34세 여성과 다른 이유들이 개입됨으로써 연구주제의 초점을 흐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이다.

<표 1> 한 자녀를 둔 여성의 특성

	도수	백분율(%)
출생코호트		
20-24세	33	6.40
25-29세	185	35.85
30-34세	298	57.75
교육수준		
중졸(중퇴포함)	9	1.74
고졸(중퇴포함)	228	44.19
전문대졸(중퇴포함)	122	23.64
4년제대졸(중퇴포함)	157	30.43
주거단위		
동부	435	84.30
읍/면부	55	10.66
부인의 직종		
무직	332	64.34
관리전문	68	13.18
사무직	51	9.88
판매서비스	44	8.53
농림업	1	0.19
기계단순노무	20	3.88
남편의 직종		
무직	34	6.59
관리전문	148	28.68
사무직	106	20.54
판매서비스	104	20.16
농림업	3	0.58
기계단순노무	121	23.45
부인의 종사상지위		
자영업, 고용직	14	2.71
무급가족	18	3.49
상용직	103	19.96
임시/일용직	49	9.50
비경제활동	332	64.34
남편의 종사상지위		
자영업, 고용직	107	20.74
무급가족	2	0.39
상용직	326	63.18
임시/일용직	47	9.11
비경제활동	34	6.59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241	46.71
주택소유자	275	53.29

<표 1> 계 속

	도수	백분율(%)
월가구총소득		
176만원 이하	140	27.13
176만원-234만원	121	23.45
235만원-292만원	65	12.60
293만원-439만원	117	22.67
440만원 이상	73	14.15
취업유무		
없다	332	64.34
있다	184	35.66
첫째아 성별		
남아	277	53.68
여아	239	46.32
초혼연도		
2000-2004년	336	65.12
1995-1999년	161	31.20
1990-1994년	18	3.49
1985-1989년	1	0.19
가사부담 공평성		
매우 그렇다	37	7.44
대체로 그렇다	185	37.22
별로 그렇지않다	184	37.02
전혀 그렇지않다	91	18.31
집안일 분담정도		
전적으로 부인이	124	25.83
대체로 부인이	237	49.38
부부가 함께	117	24.38
대체로 남편이	2	0.42
자녀돌보기 분담정도		
전적으로 부인이	62	13.54
대체로 부인이	221	48.25
부부가 함께	172	37.55
대체로 남편이	2	0.44
전적으로 남편이	1	0.22
2세미만자녀여부		
없다	198	38.37
있다	318	61.63
7세미만자녀여부		
없다	381	73.84
있다	135	26.16
이상적인자녀수		
두자녀원함	360	69.77
기타	156	30.23

2. 성 형평성과 둘째 출산 의향 분석 결과

현재 한 자녀만을 둔 20세-34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둘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로짓분석한 결과가 <표 2>이다. <표 2>에 제시된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들은 모두 범주형 변수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로짓계수는 해당 준거범주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로짓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준거범주에 비해 둘째 출산 의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고 로짓계수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는 역으로 해석하면 된다. 분석대상 516명 가운데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는 여성들은 전체의 54.7%인 282명이고 나머지 234명은 둘째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분석 결과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는 자녀 태울 조절과 원하는 자녀 구성 등 가족 주기상의 가족계획으로 보인다. 25세-29세 연령의 여성들이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 여성들보다 둘째 출산을 계획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2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이 자녀 연령이 더 높은 여성들에 비해 둘째 출산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2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은 둘째 출산을 앞당김으로써 자녀태울을 조절하고 자녀양육기간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90% 유의도 수준에서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둘째 출산에 긍정적이었다. 총가구원수가 많아지면 기혼여성취업으로 인한 이중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일정 수준까지는 오히려 가사부담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총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의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보다 더 전통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조부모 세대와 동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출산에 더욱 친화적일 수도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둘째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분석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첫째 자녀의 성이 남아인 경우 첫째 자녀가 여아인 경우에 비해 90% 유의도 수준에서 둘째 출산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약하나마 34세 이하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남아 선호 사상이 관찰된다고 하겠다. 분석 대상의 2/3 가량이 이상적인 자녀수로 두 자녀를 꼽았는데, 이때 딸, 아들 구별하여 두 자녀를 원한다는 여성일수록 둘째 출산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다. 그러므로 첫 자녀가 여아이면서 이상적인 자녀수가 둘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둘째 출산을 계획한다고 보인다.

분석 결과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둘째 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표 2> 둘째아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전체)

	전체	
	계수	표준오차
intercept	-1.628	0.659
출생코호트		
20-24세	0.498	0.445
25-29세	0.520	0.223
30-34세	(준거범주)	
교육수준		
중졸(중퇴포함)	-0.943	0.897
고졸(중퇴포함)	(준거범주)	
전문대졸(중퇴포함)	-0.000	0.249
4년제대졸(중퇴포함)	-0.102	0.252
거주지		
동부	-0.184	0.269
읍/면부	(준거범주)	
부인의 종사상지위		
자영업, 고용직	0.563	0.608
무급가족	0.372	0.532
상용직	(준거범주)	
임시/일용직	-0.112	0.369
월가구총소득		
176만원 이하	(준거범주)	
176만원-234만원	0.191	0.278
235만원-292만원	0.231	0.334
293만원-439만원	0.970	0.290
440만원 이상	0.086	0.354
2세미만자녀여부		
없음	(준거범주)	
있음	0.739	0.301
7세미만자녀여부		
없음	(준거범주)	
있음	0.044	0.313
총가구원수		
남아수	0.263 [#]	0.140
남편가사노동시간	-0.312 [#]	0.187
성형평성	8.73E-6	0.000
이상적인자녀수	0.112	0.210
이상적인자녀수		
두자녀 원함	0.344	0.212
기타	(준거범주)	
자녀성구분유무		
딸아들 구분없이	(준거범주)	
딸아들 구분하여	0.595 ^{**}	0.229
-2 Log L	631.015 ^{***}	
d.f.	21	

주: # p<0.1, * p< 0.05, ** p< 0.01, *** p< 0.001

미치지 않았다.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나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여성의 종사상 지위,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그들은 첫째 자녀의 성별, 첫 자녀의 연령, 본인의 연령으로 표현되는 가족 주기, 이상적인 자녀 구성 등에만 영향을 받아 둘째

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동거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가구구성원이나 남편의 직종, 고용형태, 부인의 직종 등도 둘째 출산 의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가족내 성 형평성 변수 역시 여성들의 혹은 부부의 둘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내 성 형평성은 두 가지 변수로 측정되고 있는데 하나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일반 가사노동+가족 보살 피기 노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족내 가사 분담의 공평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 분석 결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어떠한지 간에, 그리고 여성들이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에서 얼마나 공평하다고 인식하는지 간에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은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경제 활동 여부가 둘째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과 전업 주부의 집단간 평균 비교를 해 본 결과, 둘째 출산 계획에서 이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55.2%가 둘째 출산 계획을 갖고 있었고 전업주부 가운데 54.5%가 둘째 출산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의 집단평균은 유의도 99%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제 활동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뉘었을 때 각 집단 내에서 둘째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확연히 구별되었다.

먼저 취업 여성의 둘째 출산 의향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가 <표 3>이다. 분석 결과, 전체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4세-29세 취업 여성들이 이 연령층 전후의 여성에 비해 둘째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체 여성의 경우와 달리 취업 여성의 경우에는 그들 자신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둘째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쳤다. 즉 취업 여성들은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둘째 출산에 부정적이었으며, 취업으로 인한 이중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둘째 출산에 긍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여성들의 둘째 출산 의향도 높아졌다.

취업 여성의 경우 둘째 출산을 계획하는 데, 첫째 자녀의 성이 남아이나 여아이나 하는 점이나 2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어서 빨리 둘째 출산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의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둘째 출산을 할지 말지가 결정된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일하는 기혼 여성의 경우 그 일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평균 소득이고 둘째 출산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 취하는 전략은

<표 3> 둘째아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취업여성)

	취업여성	
	계수	표준오차
intercept	-1.666	1.214
출생코호트		
20-24세	-0.201	0.851
25-29세	0.860 [#]	0.455
30-34세	(준거범주)	
교육수준		
중졸(중퇴포함)	-14.495	597.0
고졸(중퇴포함)	(준거범주)	
전문대졸(중퇴포함)	-0.253	0.479
4년제대졸(중퇴포함)	-0.387	0.440
거주지		
동부	0.154	0.492
읍/면부	(준거범주)	
여성의 평균근무시간	0.005	0.013
여성의 월평균소득	-0.002	0.001
2세미만자녀여부		
없음	(준거범주)	
있음	0.038	0.553
7세미만자녀여부		
없음	(준거범주)	
있음	-0.530	0.546
총가구원수		
남아수	0.429 [#]	0.226
	-0.293	0.351
남편가사노동시간		
성형평성	0.001 [#]	0.000
	0.092	0.390
이상적인자녀수		
두자녀 원함	0.230	0.392
기타	(준거범주)	
자녀성구분유무		
딸아들 구분없이	(준거범주)	
딸아들 구분하여	0.656	0.432
-2 Log L	197.398	
d.f.	16	

주: # p<0.1, * p< 0.05, ** p< 0.01, *** p< 0.001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둘째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는 자녀 양육 및 가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전략을 둘째 출산 포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분석 대상의 2/3 가량이 이상적인 자녀수로 두 명을 꼽았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전략은 주로 가족보살피기의 조력자를 마련하

고, 미약하나마 남편과의 가사 분담 공평화 등을 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소득이 증대하면 자녀 출산에 따른 무급노동의 증대를 시장화할 자원이 증대함으로써 추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선 기회비용증가로 인식되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야기할 수 있는 출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역시 추가적인 자녀 출산은 여성의 고소득 경제활동에 부(-)적 요인으로 인식된다는 후자의 명제를 지지하고 있다.

적어도 일하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족내 성 형평성 정도가 둘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기혼 취업 여성의 과도한 이중 부담은 여성들로 하여금 ‘취업 지속’과 ‘자녀 출산’ 사이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 둘을 중재하는 요소로서는 가구소득이나 여성자신의 소득과 같은 ‘가용 자원’보다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같은 ‘가족내 부부간 성 형평성’이 보다 유효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4〉는 전업주부의 둘째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전업주부 집단은 둘째 출산 의향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에게 둘째 출산을 계획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은 2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지, 원하는 자녀가 딸, 아들 구별하여서인지 하는 두 가지이다. 즉 이들은 가족주기에 따른 가족계획 속에서 둘째 출산을 계획하고 자녀 양육기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재 한 자녀만을 두고 있는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가족내 부부의 ‘성 형평성 요인’은 기혼 취업 여성에게서만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둘째 출산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나 가사분담률과 같은 부부간 성 형평성 정도는 그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이 연구의 분석 자료인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 둘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이들 가운데 첫 출산과 둘째 출산 사이에 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불과 9.5%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출산 의향 분석에서 ‘가족내 부부간 성 형평성’이 전업주부의 둘째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과, 실제로 이미 둘째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90.5%가 비취업 상태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 가족내 성 역할 분담이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으로 생각

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통해 자녀출산 및 양육을 마치고서 다시 재취업하는 생애과정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성역할 규범 및 경력 단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여성들은 대체로 결혼으로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한다. 즉 우리 사회 초저출산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 집단은 결혼관계내로 들어가기를 꺼리는 미혼 집단이며, 결혼관계내의 출산력 수준은, 성 역할 규범

<표 4> 둘째아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전업주부)

	전업주부	
	계수	표준오차
intercept	-1.224	0.850
출생코호트		
20-24세	0.418	0.541
25-29세	0.287	0.284
30-34세	(준거범주)	
교육수준		
중졸(중퇴포함)	0.216	1.141
고졸(중퇴포함)	(준거범주)	
전문대졸(중퇴포함)	0.123	0.308
4년제대졸(중퇴포함)	0.359	0.335
거주지		
동부	-0.180	0.352
읍/면부	(준거범주)	
월가구총소득		
176만원 이하	(준거범주)	
176만원-234만원	0.224	0.321
235만원-292만원	0.326	0.407
293만원-439만원	0.390	0.384
440만원 이상	-0.366	0.551
2세미만자녀여부		
없음	(준거범주)	
있음	1.183*	0.396
7세미만자녀여부		
없음	(준거범주)	
있음	0.353	0.421
총가구원수		
남아수	0.035	0.198
	-0.380	0.242
남편가사노동시간		
성형평성	-0.000	0.000
	0.123	0.274
이상적인자녀수		
두자녀 원함	0.404	0.278
기타	(준거범주)	
자녀성구분유무		
딸아들 구분없이	(준거범주)	
딸아들 구분하여	0.477#	0.290
-2 Log L		386.694
d.f.		18

주: # p<0.1, * p< 0.05, ** p< 0.01, *** p< 0.001

과 함께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고한 성 역할 규범이 미혼자들의 대안적 생애과정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 자체가 미혼자 집단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저출산 현상을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가족내 성형평성 정도가 둘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족내 성형평성의 실현은 미혼집단 뿐만 아니라 현재 결혼관계내에 있는 유배우 여성들의 저출산 현상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가족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미혼자 1,387명(남성 714명, 여성 673명)을 대상으로 향후 결혼계획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3%에 불과했다(장혜경외, 2003). 성별로 볼 때 남성과 여성 가운데 결혼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55.5%와 49%를 나타내 미혼자의 50% 정도는 결혼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 집단 전체로 볼 때, 결혼과 관련된 태도와 의향은 결혼을 감소 및 초혼연령 상승으로 표현되는 결혼 연기 및 기피 현상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뿐만 아니라 미혼자 집단 내부의 성별 격차 또한 주목할 만하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성 미혼자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남성의 경우 결혼으로 이행에 취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규범이 오래전부터 관찰되어 왔으며(은기수, 1995) 최근 들어 이와 같은 규범은 여성 미혼자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결혼 계획이 없는 비율이 취업 17.5%, 미취업 41.9%이고 여성은 취업 23.5%, 미취업 38.7%의 분포를 나타냈다(장혜경외, 2003). 즉 취업하고 있지 않은 남성은 거의 절반 정도가 결혼을 계획하지 않고 있어 경제 상황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결혼 결정,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혼 여성 미취업자 가운데 38.7%가 결혼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독신 여성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들과 달리 미취업 여성들이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나 여성에게 이제 취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결혼보다 취업을 선택하려는 사고가 형성되어 감을 엿보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취업 여성의 23.5%도 결혼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예상케 하는 결혼은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결혼 계획과 관련된 남녀 미혼자의 태도는 결혼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혼 여성들이 결혼 계획이 없는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31%)”, 그 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내용은 “내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이다. 즉 현재 기성세대의 결혼 모델, 가족 모델, 부부 모델이 미혼 여성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결혼은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한다는 풍조 속에서 최대한 자신의 경력을 늘리고 일에 몰두하기 위해 결혼을 연기 혹은 기피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혼 남성들은 성 역할 규범의 또 다른 희생자로서 결혼 계획이 없는 이유로 “결혼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부족해서(41%)”, “나의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서 (18.5%)”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에게 일과 가족생활을 양자택일적인 선택의 문제로 몰고 가고 남성에게 1인 생계부양의 역할을 짐 지우는 현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는, 개인들의 생애과정 단계에서 ‘결혼’과 ‘가족 형성’을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혼 관계 내에서의 출산만을 인정하는 한국 사회의 관행이 매우 공고한 까닭에, 이와 같은 젊은층의 결혼 연기 및 기피 현상은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결과할 수밖에 없다.

IV. 맺음말

소자녀 가치관의 정착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아동은 ‘비용’이며 동시에 ‘그 어느 것으로도 가치를 잴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아동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오늘날의 낮은 출산력 수준을 설명하는 한 요소이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복잡한 만큼 복잡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논문은 사회 전체의 건강한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돌봄 노동이 모든 사회 성원들로부터 외면당해 온 역사의 결과라는 데 주목한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그들이 다시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며 나이 든 세대를 부양하는 일련의 순환적 돌봄 영역은 개별 가족에게, 가족내 여성에게 철저히 전담되었다. 그러면서도 이와 동시에 경제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시장노동에 가치 우위를 두는 현실의 힘은 강고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상적으로 꿈꾸는 두 아이에 대한 가족상과 현실에서 선택하는 가족 전략은 일정한 괴리를 보인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돌봄 영역의 양성 평등 실현이 한국

사회 저출산 현상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자 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현상의 위기 상황을 겪었던 서구 사회의 경험은, 사회 전체의 성 형평성 수준과 가족내 성 형평성 수준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맞게 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서구 사회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재 한국사회 초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 집단인 미혼집단의 증가 및 초혼연령의 상승 추세에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감수케 하는 가부장적 가족의 부정적 효과가 자리하고 있다. 개인의 시민권과 노동권에 대한 강조는 더욱 확대되면서도 결혼만 하면 한 성(性) 즉 여성에게 가사 및 돌봄 노동을 전담시킨다면 어느 누가 쉽게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을 앞당기겠는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듯이(박수미, 2005; 박수미, 2007) 한국사회 부부간 가사분담 상황은 매우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가부장적 가족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보다 더 커리어 중심적인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회피하거나 연기하는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의 분석 결과 기혼 취업 여성들도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가족내 성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저출산 지속으로 예견되는 노동력 부족,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되는 양질의 여성노동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성별분업이 해체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다시 초저출산을 야기하고 또다시 여성노동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보육체계의 확대만큼이나 가족내 성 형평성의 실현 역시 한국사회가 맞닥뜨린 초저출산 현상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바로 이 점에서 저출산이라는 위기적 상황은 한국 사회가 망각했던 돌봄의 가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도 전화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수미 (2005) 《가족내 젠더구조와 저출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_____ (2007) “한국고령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일, 무급가족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1.
 은기수 (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89-117.

- 이삼식의 14인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경 · 조영미 · 이은아 · 유정미 (2005) 《저출산의 젠더 분석 및 정책 대안 연구》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 장혜경 외 13인 (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여성부.
- Brewster, K. L. & R. R. Rindfuss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71-296.
- Chesnais, J.-C. (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729-739.
- Folbre, N. (1997) "The Future of the elephant-bir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3): 647-654.
- Hochschild, A. R. (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Viking.
- Künzler, J. (2002) "Path towards a modernization of gender relations, policies, and family building" in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edited by Schulze, H-J, et. 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hrer, E. & M. Nerlove (1986) "Female labor force behavior and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181-204.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0.
- Morgan, S. P. (2003) "Is low fertility a twenty-first-century demographic crisis?" *Demography* 40(4): 589-603.
- Rindfuss, R. R. & K. L. Brewster (1996) "Childrearing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Suppl.): 258-289.
- Torr, B. M. & S. E. Short (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2007. 11. 15 접수 | 2008. 3. 20 채택]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Gender Equity within Family and Second Birth

Soomi Park

This research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ity within family and second birth in Korea. For a factor analysis on the intention of having additional children for women with one child, I have used the data from the "2005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Trend"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mong 516 samples (year of 20-44), women planning to have second birth are 54.7%, and others have answered that they have no intention to have second birth. As a result, main causes affecting progressing to second birth seemed to be family planning on family cycle, such as controlling age gaps between first and second child, composing children genders as they wish etc. The variable of "gender equity between couples" in progressing to second birth are of significant only with married working women group. In case of married working women, more the husband's houseworking hours increase, the more prone to progress to second birth. However, in case of housewives, gender equity level, such as husband's housework hours or share of housework are not of significant influence in progressing to second birth. Not only working mothers but also housewives need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ity within the family and the expansion of social support system for work-family life balance.

Key Words: low fertility, gender equity, second birth, working mother, housewife, work-family life balance